



2026. 9. 1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증시 이 모양인데, 빚투 엄두 안나오'...신용대출 녀 달 만에 감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wnjtcU>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빚투' 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은행권 신용대출이 지난 4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신용대출은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

'고성장 우즈베크 잡아라' 신한 이어 하나銀도 진출

매일경제

<https://zrr.kr/nhqxEu>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로 꼽히는 우즈베키스탄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하고 현지 사무소 설립 작업에 착수
하나은행은 현지 거점을 구축해 양국 기업들에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계획이며, 신한은행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현지 사무소를 법인으로 격상하는 작업에 착수

은행도 '외국인 상품' 쏟아내...대출문턱 낮추고, 전용창구 확 늘려

매일경제

<https://zrr.kr/IQStcK>

내국인 고객 기반은 줄어드는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늘면서 은행권이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전용 금융 서비스를 확대
4대 은행의 외국인 특화 점포는 작년 1분기 30개에서 최근 39개로 확대 등 고객 접점을 늘리고, 동시에 상품군도 확대하며 신용대출 문턱을 먼저 낮추고 있는 모습

지방은행 지점 폐쇄 시중은행보다 2배 빨랐다

아이뉴스24

<https://zrr.kr/udZPSw>

지방은행 지점이 5대 은행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1년 반 만에 300대 가까이 축소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방에서 오프라인 금융망 축소가 가속화하면서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증권업계, 벤처 세컨더리에 3년간 1조원 투입

한국경제

<https://zrr.kr/2fZZ7f>

증권업계가 기업공개(IPO)에 치우친 벤처투자 회수(엑시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을 세컨더리 시장에 공급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돼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

밤새던 개미들 '야간선물'서 발 뺏다... 거래대금 40% 급감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cR5QZ1>

지난 6월 연중 최대를 기록한 개인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대금은 7월들어 절반 가까이 급감한 뒤 8월에도 크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급락 과정에서 손실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

소상공인에 140억원 '상생보험' 분다...이달부터 7개 지역서 출시

SBS Biz

<https://zrr.kr/F4TgtM>

보험업권이 14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
사망이나 중대질병 발생 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부터 휴업손해와 피싱 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지역별로 도입

'실손보험 악순환 반복될라' 보험사들 간병보험 보장 축소

매일경제

<https://zrr.kr/h6OXqp>

간병인 사용 임원일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보장 한도를 낮추는 등 상품 구조 손질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면서 간병보험이 출시 수년 만에 본격적인 정비 단계에 진입

빗썸 상장 코인 474개...美 최대 코인베이스보다 71개 많다

서울경제

<https://zrr.kr/ggSrwH>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대형 거래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코인을 상장
이 배경에는 현물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

IMF,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경고...신중국 통화 주권 흔들릴 수 있다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LiEJO6>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형 규제를 촉구하며 신중국의 통화대체와 자본 흐름 불안정 위험을 경고
토근화와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금융을 더 유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 위험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규제 및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강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